

## 하나님의 섭리

- 김사무엘 선교사 -

오사카 온누리교회 목사, 현 한국 선교부 대표, 온누리 세계선교훈련센터 원장

1921년 지금의 나이지리아로 불리는 벨지안 콩고로 파송되었던 David와 Svea Flood 부부의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
이들은 스웨덴 사람으로 파송된 후 현지에 도착한 곳이 N'dolera라는 마을이었습니다.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고 그 마을의 추장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여 반마일쯤 떨어진 언덕 위에 손수 집을 짓고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. 2주일에 한번씩 한 흑인 소년이 닭과 계란 등을 팔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 유일한 현지인들과의 접촉이었고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여 겨우 이 어린 소년 한사람을 구원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임신하여 어린 딸을 낳은 부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 말라리아등 풍토병으로 허약해 있다가 출산한지 17일 만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. 두 살 난 어린 아들과 이제 갓 태어난 딸을 혼자 키울 수 없어서 David 선교사는 갓난 그 딸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에게 양녀로 맡기고 스웨덴으로 귀국했습니다.

이들 미국인 선교사 부부도 현지 사역이 너무 힘들어 미국으로 귀국하여 S. Dakota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양녀로 입양한 Aggie는 잘 성장하여 N. Central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.

이 학교에서 한 신실하고 소명이 확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하여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남편은 시애틀의 기독교 대학 총장으로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.

어느 날 그녀의 집에 한 스웨덴 어로된 잡지가 배달되었고 무심히 펼쳐본 그의 눈에 원시적인 배경의 한 무덤과 하얀 십자가의 비석, 그리고 그 위에 Svea Flood라는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합니다.

양부모로부터 자신의 입양된 경위와 친부모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이 딸은 즉시로 스웨덴어를 아는 교수에게 부탁하여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.

그 내용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해들은 그 흑인 소년이 이들 부부가 떠난 다음에 복음을 추장에게 전달,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온 마을이 예수를 믿어 지금은 6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

이 딸은 스웨덴에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.

그 동안 재혼 하여 네 아이를 더 가졌으나 그 일생을 슬로 다 망치고 지금은 73살 노인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
딸을 만난 그 아버지는 “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.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된 것이다. 다 하나님 때문이다.”라고 분노와 역정을 토해 놓았습니다.

딸은 그 흑인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와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한 적이 없고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누었습니다.

50년이 넘게 비탄 속에 살던 그 아버지는 주께로 다시 돌아섰고 몇 주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

몇 년 후 이 딸 부부가 영국 런던의 한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나이지리아의 대표가 참석해 있음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 흑시 Svea Flood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.

그러자 자기가 곧 그분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된 소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.

시편 126편 5절의 “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”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

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합니다.

⊙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! - 「온누리칼럼」 제공